

趙氏源流

趙直紹切天水角音顓頊伯益之後十三代至造父事周穆王封趙城子孫因氏
 秦並六國子孫分散至京兆尹廣漢世居涿郡宋僖祖生長於燕即其後也出萬姓統譜
 宋趙姓其先出自黃帝孫高陽之後周穆王封造父於趙城因氏焉其後與韓魏
 分晉為諸侯至京兆尹趙廣漢居涿郡遂為涿州人其後趙弘殷事後唐漢周三
 朝累遷龍捷左廂都指揮使生子匡胤事後周累立戰功遷殿都點檢奉恭帝命
 北拒契丹至陳橋自立受恭帝禪即帝位國號大宋承周木德以火德王都汴即
 今開封府是也 出三才國會

조씨원류(趙氏源流)

조직소절천수각음(趙直紹天水角音) .. 진유(顓頊) ① 과 백익(伯益) ② 후손인데 十三
 대 조보(造父)에 이르러 주목왕(周穆王)을 섬겨 조성(趙城)에 봉해져 자손이 이를
 인하여 조씨(趙氏)가 되었다. 진(秦)나라가 육국(六國)을 병합하여 자손이 분신되어
 경조윤(京兆尹) 조광한(趙廣漢)이 탁군(涿郡)에 세거(世居)하여 송희조(宋僖祖)가

연(燕)에서 생장하였으니 바로 그 후손이다。 — 만성통보(萬姓通譜)에 나온다。

송(宋)의 조씨 성은 그 선대가 황제(黃帝)의 손자 고양씨(高陽氏)의 후손이다。

주목왕이 조보를 조성에 봉하여 이를 인해 성씨를 삼았다。 또 후에 한(韓) 위(魏) 조(趙)가 진(晉)나라에서 나뉘어 제후(諸侯)가 되었는데 경조윤(京兆尹) 조광한(趙廣漢)이 탁군(涿郡)에 살기에 이르러 마침내 탁주인(涿州人)이 되었다。 그후 조홍은(趙弘殷)이 후당(後唐) 후한(後漢) 후주(後周) 세 나라를 섬기면서 응첩좌상(龍捷左廂) 도지휘사(都指揮使) 등 여러 번 자리를 옮기면서 아들 광운(匡胤)을 낳았다。 후주(後周)를 섬기면서 여러 차례 전공(戰功)을 세워 전도점검(殿都點檢)으로 옮겨 공제(恭帝)의 명을 받들어 북쪽의 거란(契丹)을 막다가 진교(陳橋)에 이르러 자립(自立)하여 공제의 선위(禪位)를 받아 제위(帝位)에 올라 나라 이름을 대송(大宋)이라 하고 주(周)의 목덕(木德)을 계승하여 화덕(火德)으로 하고, 도읍을 변(汴)으로 정하니 바로 지금의 개봉부(開封府)가 그곳이다。 —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나온다。

註 ① 저옥(顓頊) : 고대 황제(黃帝)의 아들. 오제(五帝)의 하나로 호(號)를 고양씨(高陽氏)라 한다。

② 백익(伯益) : 순(舜) 임금 때 사람으로 우(禹)를 도와 치수(治水)에 공을 세웠다。